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예화(例話)와 조선, 그리고 프랑스

- 전형적인 텍스트에 대한 비전형적인 독서 -

김은영*

- I. 서론
- II. 역사적 배경과 방법론
- III. 예화의 전형성과 프랑스인의 종교성
- IV. 예화의 현지화와 조선, 그리고 프랑스인의 종교성
- V. 결론

예화란 그리스도교 교훈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일화적 글쓰기로서, 본고에서는 1887년 이전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직접 겪었거나 들은 사건을 글로 옮긴 삽화적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 장르는 유럽 중세 예화(exemplum)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예수회의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1702-1776)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예화는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뿐 아니라 이들의 서신교환자들에게도 매우 친근한 장르였다. 조선이라는 머나먼 선교지를 배경으로 하는 일화들은 교육적이면서 유쾌하고, 고전적이면서도 이국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편지 안에 이러한 에피소드를 삽입함으로써 서신교환자를 손쉽게 감동시킬 수 있다. 허구성 여부를 떠나, 예화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식 글쓰기 형식을 통해 표현된 '편한' 조선의 모습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기대치 않은 증언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교훈적 일화는 서양 중세 예화처럼 해석될 수도 있으며, 민속학적 단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 조교수

선교사 예화에 대한 또 다른 읽기 방식은 예화의 전형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사식으로 올바른' 예화의 전형성 덕분에 예화의 저자인 선교사 및 그의 독자가 가진 종교적 심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로 보낸 예화를 분석함으로써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선교를 주도했던 프랑스인들의 종교성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예화, 선교사 텍스트, 종교성, 프랑스 선교사, 조선 교회사

I. 서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있어 선교사들의 삶은 그 자체로 교훈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선교사들과 서신을 교환하던 19세기 프랑스인들은 선교지를 배경으로 하는 교훈적인 일화를 구체적으로 읽고 싶어 했으며, 선교사들은 지인들에게 교훈적인 일화를 들려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교사들은 편지 안에 종종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에피소드를 삽입하였다. 이 일화들은 대개 선교사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거나 직접 들은 이야기로서,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소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다. 본보기가 되는 이러한 구체적인 일화, 다른 말로 예화는 선교사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며 이는 중세 예화(exemplum)¹⁾의 전통과 닮아 있다.

예화는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뿐 아니라 이들의 서신교환자들에게도 매우 친근한 장르였다. 따라서 이런 류의 글쓰기는 19세기

1) 중세의 예화문학에 관하여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Claude Bremond, Jacques Le Goff, Jean-Claude Schmitt, *L'«Exemplum»* (Turnhout: Brepols, 1982); Jacques Berlioz et Marie Anne Polo de Beaulieu (dir.) *Les Exempla médiévaux* (Carcassonne: GARAE/ Hesiode, 1992).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누구나 들어 봄직한 이야기 구성은 그리스도교적 교훈이라는 상투적인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다. 머나먼 선교지를 배경으로 하는 일화들은 교육적이면서 유쾌하고, 고전적이면서도 이국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편지 안에 이러한 에피소드를 삽입함으로써 서신교환자를 손쉽게 감동시킬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선교사들의 편지에 삽입된 예화는 독립적인 사건과 그리스도교적 교훈의 결합이라는 상투적인 외형보다 더욱 복잡적이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일화들은 조선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조선 사회의 일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화의 허구성 여부를 떠나, 예화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식 글쓰기 형식을 통해 표현된 ‘뻔한’ 조선의 모습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기대치 않은 증언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작가-선교사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교훈적 일화는 크게 두 층위의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이 일화들을 서양 중세 예화처럼 읽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속학적(ethnographique/ethnographic) 단평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이역만리 타국에서 선교사가 겪는, 혹은 겪었다고 간주되는 에피소드들이 선교사에 의해 글쓰기 방식으로 전유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연구자는 예화에 대한 또 다른 독서를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식으로 올바른’ 예화의 전형성 덕분에 예화의 저자인 선교사 및 그의 독자가 가진 종교적 심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로 보낸 예화를 분석함으로써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선교를 주도했던 프랑스인들의 집단적인 종교성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본론은 세 절로 구성되었다. 제Ⅱ절에서는 19세기 프랑스 가톨릭계의 선교 활동 및 조선 선교 상황을 개괄하는 한편, 선교사 텍스트를 사료로 삼는 역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고찰할 것이

다. 제Ⅲ절에서는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생산한 예화의 전형성 및 이 전형성이 어떤 점에서 19세기 프랑스인의 종교성을 반영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제Ⅳ절에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예화가 당대 조선 사회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화의 현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글쓰기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은 그 글의 주인공(조선인)이라기보다는 글의 생산자 및 소비자(프랑스인)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예화라는 전형적인 선교사 텍스트의 행간을 읽어내는 작업은 흥미롭다.

II. 역사적 배경과 방법론

19세기는 그리스도교 선교의 황금기로²⁾ 특히 가톨릭 선교는 세계 곳곳에서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자리 잡았고, 선교 활동에서 프랑스인들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선교사의 대다수가 프랑스인이었다. 예컨대 1878년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선교사의 4분의 3이 프랑스인이었고³⁾, 1900년에는 3분의 1이상의 남성 선교사와 대다수의 여성 선교사가 프랑스인이었다.⁴⁾ 한편 19세기 프랑스인들은 재정적으로 중요한 가톨릭 선교 후원자였다. 1818~1900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46개 이상의 선교 지원 조직이 창설되었다.⁵⁾ 또한 19세기에 창립된 43개의 새로운 가톨

2) Claude Prudhomme, «Quand triomphe la mission: autopsie d'un succès», Claude Prudhomme (dir.), *Une appropriation du monde, mission et missions, XIX^e-XX^e siècle* (Paris: Publisud, 2004), p. 5.

3) Denis Pelletier, *Les catholiques en France depuis 1815* (Paris: La Découverte, 1997), p. 32.

4) Claude Prudhomme, «L'action missionnaire aux XIX^e et XX^e siècles», Alain Corbin (dir.), *Histoire du christianisme* (Paris: Le Seuil, 2007), p. 442.

릭 선교회 중 25개가 프랑스에서 등장하였는데,⁶⁾ 이 중 1658년에 창설된 파리와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MEP)는 아시아 전문 선교회로서 조선, 중국, 베트남 등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였다.⁷⁾ 특히 조선대목구는 1831년 설립과 동시에 파리와방전교회에 일임되었다.

조선에 입국한 최초의 프랑스 선교사는 파리와방전교회 소속 피에르 모방(Pierre Maubant, 1803-1839)으로, 모방 선교사는 1836년 1월 13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통해 조선에 잠입하였다.⁸⁾ 모방이 조선에 입국한 1836년에서 조불조약이 체결된 1886년 사이 총 32인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조선에 들어와 은밀하게 거주하며 선교활동을 벌였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의 공권력은 프랑스 선교사들뿐 아니라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 입국 및 체류마저 불법인 상황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서한 교환은 참으로 길고”⁹⁾, “통신 수단은 몹시 귀하고 어려웠다”¹⁰⁾. 본고가 다루는 시기인 1836

5) Patrick Cabanel et Michel Cassan, *Les catholiques français du XVI^e au XIX^e siècle* (Paris: Nathan, 1997), p. 75.

6) Charles Molett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Vatican II»,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ascétique et mystique*, t. 10 (1980), col. 1391; Claire Laux, «L'élan missionnaire en France et en Angleterr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XIX^e siècle», Hélène Fréchet (coord.) *Religion et culture de 1800 à 1914. Allemagne - France - Italie - Royaume-Uni* (Paris: Éd. du Temps, 2001), p. 98-105.

7) 파리와방전교회의 역사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Adrien Launay, *Histoire général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Paris: Téqui, 1894), 3 vol., 595-594-646 p. Gilles Van Grasdorff, *La belle histoire des Missions-Étrangères. 1658-2008* (Paris: Perrin, 2007), 492 p.

8) 파리와방전교회 문서고(Archiv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이하 AMEP) 1269: Maubant, lettre aux directeurs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Séoul, 4 avril 1836, pp. 77-96,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이하 APF), n° 64 (t. 11, mai 1849), pp. 342-348. 파리와방전교회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 묶음 중 일부 묶음의 경우, 장 번호 혹은 면 번호가 두 종류씩 존재한다. 이는 파리와방전교회가 새로운 마이크로화 작업을 하는 와중에 초래된 혼란으로서, 새로운 번호는 목록에 등장하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여 인용하였다.

9) AMEP 0577: Corée, lettre de Féron à sa famille, datée de Séoul, 17 octobre 1857, p.1039.

10) AMEP 0857: Bretenières(Ranfer de), codex 4,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Séoul, 30

년-1886년의 대부분 동안 일반적으로 선교사의 서찰 심부름꾼은 일년에 단 한 번 조선을 빠져 나갔다 귀국했다.¹¹⁾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시기는 1880년대이다.¹²⁾ 서신 교환이 지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 이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 밖으로 내보낸 서한 및 보고서의 양은 상당하며¹³⁾, 이 글들은 소위 박해시대 한국 천주교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글을 재료로 삼아 교회사나 선교사(史) 이외의 다른 역사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장-클로드 라보리(Jean-Claude Laborie)에 따르면, 16세기 브라질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글은 특정 수도회의 신학과 전략 및 이방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특수한 상황이 각인된 세계관을 드러낸다.¹⁴⁾ 이 평가는 19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더구나 선교사들의 글 대부분은 서한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글은 이들에게 강제된 삶의 양태를 더욱더 잘 반영한다. 결국 선교사들의 글은 각 선교회와 선교지에 따라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 일정 정도의 전형성과 상투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1836년에서 1886년 사이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은 거의 동일한 리듬으로 편지를 생산했다. 이 리듬은 당연히 선교사들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기

juillet 1865, p.1.

- 11) Kim Eun-Young, *Le discours des missionnaires français en Corée(1831-1886): correspondances et relations* (thèse de doctorat,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Paris, 2008), pp. 124-155.
- 12) AMEP 0580: Corée, lettre de Blanc à Mgr Petitjean, provicaire au Japon, datée de Corée, 1^{er} septembre 1880, p.839; AMEP 0580: Corée, lettre de Mgr Blanc à Lemonnier, procureur à Hong Kong, datée de Nagasaki, 2 juillet 1883, p. 1142; AMEP 0580: Corée, lettre de Mgr Blanc à Martinet, procureur à Shanghai, datée de Séoul, 15 octobre 1883, p. 1162.
- 13) Kim Eun-Young, *op. cit.*, pp. 535-553.
- 14) Jean-Claude Laborie, «Introduction», à Jean-Claude Laborie (éd. et trad.), *La mission jésuite du Brésil. Lettres & autres documents (1549-1579)* (Paris: Chandeigne, 1998), p. 17.

동안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지에서 경험한 삶은 크게 세 단계 - 육로나 해로를 통해 조선에 잠입하기, 비밀리에 선교 활동하기, 조선에서 죽거나 조선 밖으로 쫓겨나기 - 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는 특정한 장르의 글을 통해 전형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선교사 서한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형식 면에서, 1887년 이전에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은 이렇듯 전형적이고 상투적이다. 상기한 선교사들의 삶의 세 단계에 따라 선교사들의 서한에서 세 장르-여행 보고문, 예화, 순교자전-를 선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¹⁵⁾ 내용 면에서, 선교사 서한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선교사 담론과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프랑스인을 겨냥한 선교 담론의 진수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전형적인 선교사 장르들은 선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며, 결국 글의 형식은 내용 못지않은 담론이기도 하다.

첫째, 조선에 도착한 첫 순간에 선교사들은 여행 보고문을 작성한다. 여행 보고문은 성공적인 여정뿐 아니라 소위 이국적인 난관의 극복을 묘사함으로써 선교사 메시지를 독창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미지의 적대적 조선에 대한 민속학적 단편을 풍부히 동반한다. 결국 여행 보고문을 통해 여행 과정 이야기와 민속학적 감상이 선교사 담론에 의해 전유된다.¹⁶⁾

둘째, 조선 체류 동안 선교사들은 지인 및 선교회 본부로부터 특정한 유형의 글을 쓰도록 요청 받는다. 조선은 당시 서구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조선에 체류하는 선교사들의 글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다.¹⁷⁾ 이러한 기대는 민속학적 단편

15) Kim Eun-Young, «Le discours des missionnaires français en Corée(1831-1886): correspondances et relations», *Positions des thèses* (Paris: Ecole nationale des chartes, 2008), pp. 180-185.

16) 김은영, 「1831-1886년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여행 보고문: 프랑스인을 겨냥한 선교 담론의 구축」, 『프랑스사 연구』, 제20호 (2009. 2), pp. 101-130.

17) 김은영, 「서양인이 읽은 조선-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9호 (2008. 12), pp. 201-237.

및 예화에 대한 요구로 대표된다. 선교사들은 서신교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애썼지만, 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민속학적 글을 풍부하게 생산하지는 않았다. 반면 선교사들은 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화에 의도적으로 더욱 신경을 쏟았던 것 같다. 예화의 첫 번째 목적은 독자의 감화로서 이 장르는 중세 유럽에서도 그랬듯이 사도적 담론의 전달을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더불어 선교사들의 예화는 미지의 선교지인 조선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르는 조선에 대한 기대치 않은 정보까지 담고 있다.

셋째, 선교사들의 죽음, 특히 순교는 글쓰기를 발생시킨다. 순교자 전기는 순교자 약력과 순교 보고문으로 구성된다. 순교자 약력을 통해 선한 선교자 상에 대한 기대와 선한 선교사가 헌신한 땅에 대한 전유가 드러난다. 순교자 전기의 본문 격인 순교 보고문은 순교자가 예수의 예를 따라 죽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순교자 전기의 작가들은 순교자가 ‘선한 목자’의 형상을 갖춘 인물임을 역설한다. 물론 조선 선교지와 관련된 순교자 전기는 조선 교회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선교사의 순교를 빛내려는 목적을 가진 순교자 전기는 일차적으로 선한 선교사라는 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 장르에서 조선은 야만적이며 이국적인 배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⁸⁾

요컨대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있어 조선은 선교의 대상인 동시에 자국 천주교인들의 ‘재복음화’를 위한 훌륭한 도구였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교회의 위상은 변화를 겪는 중이었으며, 당시 프랑스의 종교 구도에서 파리의방전교회는 보수주의 가톨릭파, 다시 말해 소위 비타협적인 가톨릭주의(catholicisme intransigent)¹⁹⁾의 지지

18) Kim Eun-Young, *op. cit.*, pp. 374-509.

19) 필립 부트리(Philippe Boutry)에 따르면, 19세기의 비타협적 가톨릭주의자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계몽사상,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자유주의 국가를 거부한, 종교적 이면서 정치적인 가톨릭 세력이다. 1830년대에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왕정복고 시대의 젊은 사제 세대, 즉 전형적인 비타협 가톨릭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농촌 출신이며, 속성으로 사제 교육을 받았고, 열정이 넘치고, 내용과 형식 양 측면

세력이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1세의 제정, 복고왕정, 7월왕정, 제2공화정, 제2제정을 거쳐 마침내 반교권적 제3공화정의 도래 및 정착을 경험하면서 19세기의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교황 비오 9세(1846-1878)와 함께 비타협주의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²⁰⁾ 한편, 가톨릭 세력이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이 세기에 역설적이게도 가톨릭 외방 선교가 대중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여행 보고문, 예화, 순교자전과 같은 선교사 텍스트는 19세기 프랑스 외방 선교 성공의 동인이자 결과물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상황에서 '내방 선교' 혹은 '재복음화'가 외방 선교와 맺고 있던 긴밀한 관계는 바로 이러한 선교사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대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이역만리 '이교국'에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선교사식으로 재구성한 교훈적인 실화는 프랑스 서신교환자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사도적 의지를 생생하게 반영한다.

이렇듯 19세기에 생산된 선교사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프랑스인들의 종교적인 면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

에서의 비 협상, 경전을 중시하였다. Philippe Boutry, «Un catholicisme intransigeant. Le «moment Pie IX» (1846-1878)», Alain Corbin (dir.), *op. cit.*, p. 410 pp. 412-413. Philippe Boutry, «Jean-Marie-Baptiste Vianney, curé d'Ars (1786-1859)», Alain Corbin (dir.), *op. cit.*, p. 389. Cf. Philippe Boutry, *Prêtres et paroisses au pays du curé d'Ars* (Paris: Le Cerf, 1986), 706 p.

- 20) 비타협 가톨릭주의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Philippe Boutry, «Ultramontanisme», Philippe Levillain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papauté* (Paris: Fayard, 1994), pp. 1651-1653. «Ce catholicisme qu'on pourrait dire intransigeant», avant-propos à Michèle Sacquin, *Entre Bossuet et Maurras. L'antiprotestantisme en France de 1814-1870* (Paris: École des chartes, 1998), pp. XIII-XXIII. Philippe Boutry, «Papauté et culture au XIX^e siècle. Magistère, orthodoxie, tradition», *Revue d'histoire du XIX^e siècle, Religion, politique et culture au XIX^e siècle* (2004-28), <http://rh19.revues.org/document615.html> (등록일: 2005.6.19, 검색일: 2007.8.10일). Philippe Levillain, *Albert de Mun. Catholicisme romain et catholicisme français du Syllabus au Ralliement* (Rome: Bibliothèque des Écoles françaises d'Athènes et de Rome, 1983), 1062 p. Jean-Marie Mayeur, *Catholicisme social et démocratie chrétienne. Principes romains, expériences françaises* (Paris: Le Cerf, 1996), 287 p. Émile Poulat, *Église contre bourgeoisie. Introduction au devenir du catholicisme actuel* (Paris: Casterman, 1977), p. 290.

은 종교성의 역사(histoire religieuse/religious history)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성의 역사는 종교적인 감성과 관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종교성을 집단성과 사회성으로 확장시켜서 연구하는 역사 방법론을 가리킨다.²¹⁾ 이 역사학은 교회사(histoire de l'Église/Church history) 및 종교사(histoire des religions/history of religions)와는 달리 종교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조금 더 천착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믿기'와 '믿게 하기'의 역사에 관심을 두는 역사 연구이다.²²⁾ 한편 프랑스 선교사들의 글을 통해서 탐구할 수 있는 분야는 조선인의 종교성보다는 프랑스인의 종교성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선교사들의 글은 조선인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프랑스인의 종교적 체험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
- 21) Jacques Le Goff, René Rémond, «Préface», à Jacques Le Goff, René Rémond (dir.), *Histoire de la France religieuse*, vol. 1 (Paris: Le Seuil, 1988), p. 10. 종교성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이론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Alphonse Dupront, *Du sacré. Croisade et pèlerinages. Images et langages* (Paris: Gallimard, 1987), 541 p.; Françoise Hildesheimer, *L'histoire religieuse* (Paris: Publisud, 1996), 143 p.; Dominique Julia, «La religion. Histoire religieuse», *Faire de l'histoire* (t. II, 1974), pp. 137-167; Claude Langlois, «Trente ans d'histoire religieuse»,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1987), pp. 85-114; Claude Langlois et André Vauchez, «L'histoire religieuse», François Bédarida (dir.), *L'histoire et le métier d'historien en France* (Paris: Éd.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95), pp. 313-323; Claude Langlois et Jean-Marie Mayeur, «Sur l'histoire religieuse de l'époque contemporaine», *Revue historique* (t. 512, oct.-déc. 1974), pp. 433-444; Gabriel Le Bras, *Introduction à l'histoire de la pratique religieuse en France* (Paris: Puf, 1942, 1945), 2 vol., 128-152 p.; Jean-Marie Mayeur (dir.), *L'histoire religieuse en France. XIX^e-XX^e siècle. Problèmes et méthodes* (Paris: Beauchesne, 1975), 290 p.; René Rémond, «L'histoire religieuse en France au XX^e siècle», *Vingtième siècle*, (1988), pp. 93-107.

- 22) Marie-Anne Polo de Beaulieu, «L'histoire religieuse en France», : <http://www.menestrel.fr> (등록일: 2008.2.6; 검색일: 2008.2.18).

III. 예화의 전형성과 프랑스인의 종교성

1) 기대의 전형성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게 부과된 『포교성성 지침(Instructions aux missionnaires de la S. Congrégation de la Propagande)』의 제2장 제4항 《포교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²³⁾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더 바람직한 선교 활동을 위해 현지의 풍속과 현지인의 성향 등을 공부하고 현지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따라서 소위 박해시대에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에는, 행정적인 이유에서라도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한편 조선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부재하던 19세기에 사적 서신교환자들도 먼 선교지와 관련된 새로운 발견이 가득한 편지, 이국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편지, 즉 민속학적 묘사가 풍부한 편지를 받고 싶어 했다.²⁴⁾ 또한 선교사의 서신교환자들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묘사 외에도 머나먼 선교지에서 발생할 법한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에피소드를 무척이나 읽고 싶어 했다.²⁵⁾

예컨대 프티니콜라(Michel-Alexandre Petitnicolas, 1828-1866) 선교사의 서신교환자들은 대부분 성직자로서, 이들은 프티니콜라에게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서 일어날 법한 실화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서신교환자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독려한 것으로 보아 프티니콜라의 편지는 서신교환자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프티니콜라의 출신 본당

23) *Monita ad Missionarios. Instructions aux Missionnaires de la S. Congrégation de la Propagande*, rédigées en 1665 par François Pallu, évêque d'Héliopolis & Pierre Lambert de la Motte, évêque de Béryste, rééditées par les Archiv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Paris, Archives des MEP, 2000), pp. 36-37.

24)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octobre 1847, fol. 19rv.

25)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Ganaye, curé à Hurbache, datée de Corée, 17 mars 1865, p. 283.

에 들어선 고아원의 아이들도 프티니콜라와, 조선, 특히 《이 슬픈 나라에서 사는 너무나 비참한 이교도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 받았다.²⁶⁾ 이런 이유로 프티니콜라의 서신교환자들은 그리스도교적인 감동을 주는 이국적인 에피소드를 더욱더 기대하였을 것이다.

서신교환자들이 선교사의 독창적인 경험으로부터 종교적 감화를 얻고자 했던 만큼 선교사들도 서신교환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려는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감동적인 일화를 증거함으로써 사도의 삶이 행복과 보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랑할 수 있고 지인들의 영성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성체 날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예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저는 항상 감명을 받습니다. 이들은 항상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²⁷⁾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선교사들은 프랑스 지인들이 ‘선한 그리스도교인’으로 남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멀리 떨어져 사는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조선 [교회] 역사의 일부인 교훈적인 이야기를 몇 줄 보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파리 본부로 보내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출판되지 않을 것입니다.²⁸⁾

26)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Soeur Modeste Laurent à Hurbache, datée de Corée, mars 1865, p. 287.

27)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Jurines, direct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fin février 1847, fol. 15v.-16r.

28)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58, fol.97rv; 103v.-104r.

따라서 서신교환자들이 조선식 예화를 원했던 것만큼이나 선교사들은 이 예화를 프랑스로 보내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 선교사 글쓰기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미지의 나라를 통해 자국 독자에게 감화와 위안을 주어야 했다.

이 슬픈 나라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편지를 끝맺겠습니다. 당신께서 감화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교는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영세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²⁹⁾

다음 기회에 더 길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 몇몇 교훈적인 사실을 인용해 드리고 싶었으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써서 죄송합니다.³⁰⁾

더구나 선교사들의 서한을 다소 공개적으로 읽는 관행은 당시 프랑스 천주교인들에게서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신의 편지를 어느 정도 유통시킴으로써 선교사들은 《경건하고 자비로운 영혼들》이 선교사와 조선인을 위해 기도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독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쓸 필요가 있었다.

당신께서는 면회실에 오는 경건하고 자비로운 영혼들에 대해 자주 말씀 하셨습니다. 이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바다와 가장 가까운 구역에 사는,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당신께서 이들을 설득하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 만약 필요하다면 제 편지를 이 자비로운 이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단 제가 쓴 내용이 수녀원 담 밖으로

29)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l'abbé Renard, aumônier des religieuses du Saint-Esprit à Rouceux (Vosges), datée de Corée, 15, novembre 1865, p. 311.

30)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l'abbé Renard, aumônier des religieuses du Saint-Esprit à Rouceux (Vosges), datée de Corée, octobre 1857, p. 120.

나가지 않는 조건이라면 말입니다.³¹⁾

따라서 대중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선교사들은 때로 의식적으로 선교사다운 글쓰기를 실행한다. 물론 어떤 선교사는 아래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편지가 《절친한 범위 안에 항상》 머물기를 선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독자의 수가 많건 적건 간에 독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면 선교사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특히 영적인 동기를 자극해야 했다. 요컨대 선교사의 편지는 감화를 주고 위안을 주어야 한다. 한편, 독자들은 선교사의 서한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저는 이 편지를 요코하마와 아메리카를 거쳐 보냅니다. 이 편지는 영불 해협을 거쳐 파리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파리에 들어간 이 편지는 세계 일주를 한 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종이는 파리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이와 흡사한 일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노삭(Naussac), 혹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당신께서 보기에 적당하다 싶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는 일정 정도 절친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³²⁾

다음 기회에는 나가사키에서 조선 복장을 하고 찍은 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우편을 통해 타이즈(Thais)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타이즈가 부모님께 편지를 보여준다면 다른 가족이나 이웃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여주셔도 좋습니다.³³⁾

제다가 자신의 편지가 출판될 것을 확신하거나 혹은 출판용 편

31) AMEP 0811: Aumaitre, lettre aux carmélites (Paris), datée de Corée, octobre-novembre 1865, p. 48r.

32) AMEP H-11: Couderc, lettre au curé de Béteille, datée de Nagasaki, 12 janvier 1885, s. p.

33) AMEP H-11: Couderc,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18 mai 1885, s. p.

지를 쓰도록 요청 받은 경우라면, 선교사는 대중의 기대사항 및 출판이 선교 사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더욱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인들을 위한 글쓰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중을 위한 글쓰기에서도 이국적인 예화의 삽입은 선교사다운 글을 보장해주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교훈적인 일화는 전교회(Oeuvre de la Propagation de la Foi) 지도부가 선호하는 글쓰기 유형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가톨릭 선교 사업을 지원했던 조직 중 가장 강력한 단체인 전교회는 1822년 프랑스 리옹(Lyon)에서 창립되었으며, 『전교회보』(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³⁴⁾라는 기관지를 대중적으로 유통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선교사들의 서한을 배포하고 후원금을 모았다. 따라서 파리외방전교회는 19세기 내내 전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서한도 이 정기간행물을 통해 꾸준히 출판되었다.³⁵⁾ 베르뇌(Siméon François Berneux, 1814-1866) 주교는 1856년에 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 전교지에는 『전교회보』 독자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사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따라서 교훈적인 두 편의 실화를 보내면서 조선 전교지는 이들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득하고자 애쓴다.³⁶⁾

2) 형식의 전형성

선교사들과 서한을 교환했던 프랑스인들은 공적 집단과 사적 집단, 이렇게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 편지는 대개 파리

34) 전교회 기관지, 1825-1933 (n° 1-632), 격월간지(계간지로 시작).

35)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작성한 편지 및 보고서 중 1887년 이전에 『전교회보』와 『가톨릭 선교』를 통해 출판된 글의 목록>, 김은영, 「서양인이 읽은 조선-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9호 (2008. 12), pp. 228-235.

36) Lettre de Mgr Berneux, aux présidents des Conseils centraux de la Propagation de la Foi, datée de Corée, 4 septembre 1856, APF, n° 174, (t. 29, septembre 1857), pp. 392-401.

외방전교회원을 수신자로 하고 있으며 이런 편지는 조선 선교 상황, 필요한 물품목록, 조선 정치 분석, 재정 관련 질문, 선교사 입국관련 정보 등을 담고 있다. 공식 서한의 첫째 기능은 행정 기능이다. 반면 사적 편지의 내용은 수신자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사적 편지는 때로 매우 개인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적 편지와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수신자가 누구이건 간에 선교사 글쓰기는 영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글쓰기 형식 중 하나가 바로 예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예화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récit édifiant*(사전적 의미는 교훈적인 이야기)의 번역으로, *récit édifiant*은 예수회의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³⁷⁾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다. 1702-1776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출판된 예수회의 소위 교훈적인 편지들은 총 34권의 전집으로 묶였고, 19세기에 여러 번 재판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유럽 대중에게 원거리 복음화라는 취향을 심어 주었다.³⁸⁾ 바로 이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를 통해 선교사 서한이라는 장르를 탄생되고 규정되었다. 19세기가 되자 이 전통은 파리와방전교회 선교사들 및 전교회의 정기간행물에 의해 안정적으로 계승되었다.³⁹⁾

본고에서 예화란 그리스도교 교훈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일화적 글쓰기로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직접 겪었거나 들은 사건을 글로 엮은 삽화적 이야기를 가리킨다.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37)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Paris, 1702-1776), 34 vol. (nouvelle éd., 1780-1783), 26 vol.

38) Jean Pirotte, «La mobilisation missionnaire, prototype des propagandes modernes», Chantal Paisant (éd.), *La Mission en textes et en images, XVI^e-XX^e siècles* [actes du colloque du GRIEM, janvier 2003] (Paris: Karthala, 2004), p. 222.

39) Joseph Dehergne,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Catholicisme*, VII (1975), col. 491.

선교사들이 작성한 예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중세 예화의 전통도 이어 받고 있다. 중세 예화는 《체험된 것으로 제시되는 짧은 이야기로서 유익한 교훈에 의해 청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연설(일반적으로 설교)에 삽입될 용도로 마련되었다》.⁴⁰⁾ 요컨대 이 이야기는 교훈(보편 규칙)을 주는 본보기성 에피소드(개별적 사건)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지에 삽입한 일화들은 네 가지 면에서 이러한 중세 예화의 특성과 일치하며, 이런 점에서 지극히 전형적이다.

첫째, 짧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예화는 중세 예화와 비슷하다. 선교사들은 당연히 예화라는 문학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전형에 따라 이야기를 작성하는 데에 익숙했음에 틀림없다.

둘째, 프랑스 선교사들의 예화도 중세 예화처럼 작가에 의해 체험된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각 이야기는 작가-선교사가 실제로 겪었거나 들은 이야기처럼 소개된다. 이 덕분에 이야기의 진정성 혹은 독창성이 보장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첫 문장을 통해서 삽입된 이야기의 체험성이 강조된다.

또 다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Voici l'autre fait.⁴¹⁾

일 년 전에 저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이 분은 삼십 년 전부터 영혼은 그리스도교인이었습니다.

Il y a un an, je vis une bonne vieille qui depuis trente ou quarante ans était chrétienne dans l'âme.⁴²⁾

젊은 우리 그리스도교인 중 한 사람의 열성을 묘사해드릴까요?

40) Claude Bremond, Jaques Le Goff, Jean-Claude Schmitt, *L'«Exemplum»* (Turnhout: Brepols, 1982), p. 36; Jacques Berlioz, «Introduction à la recherche dans les *exempla* médiévaux», Jacques Berlioz et Marie Anne Polo de Beaulieu (dir.) *Les Exempla médiévaux* (Carcassonne: GARAE/Hesiodé, 1992), pp. 17-87.

41) Lettre de Mgr Berneux, aux présidents des Conseils centraux de la Propagation de la Foi, datée de Corée, 4 septembre 1856, *APF*, n° 174, (t. 29, septembre 1857), pp. 392-401.

42)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48, fol. 35r.

Voulez-vous un trait de ferveur d'un de nos jeunes chrétiens.⁴³⁾

이삼십 년전, 한 그리스도교인 가족이 귀양을 떠났습니다.

Il y a environ vingt ou trente ans, une famille chrétienne avait été envoyée en exil.⁴⁴⁾

간단히 예 하나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

Je vous en cite un exemple en passant.⁴⁵⁾

어제 저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ier j'apprenais une bonne nouvelle, je vous la transmets telle quelle.⁴⁶⁾
새로운 예비 신자 중 한 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당신께 묘사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Je ne puis vous taire un beau trait de l'un de ces nouveaux catéchumènes.⁴⁷⁾

올 봄에 한 지방관이 새롭게 개종한 양반을 체포하여 투옥하였습니다.

Ce printemps le gouverneur d'une province fit saisir et emprisonner un noble nouvellement converti.⁴⁸⁾

또 다른 짧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부활절 이후였습니다. 저는 몇몇 초심자를 방문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Voulez-vous une autre petite histoire. C'était après Pâques, je me mets en route pour visiter quelques néophytes.⁴⁹⁾

은총이 역사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를 말해드릴까요? 다음은 폐롱

43)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fin janvier 1856, fol. 78r.

44)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6, fol. 82v.

45)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l'abbé Renard, aumônier des religieuses du Saint-Esprit à Roueux (Vosges), datée de Corée, 10 octobre 1859, p. 166.

46)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octobre 1854, fol. 69v-70r.

47) AMEP 0487-4: Daveluy, vol.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6 septembre 1853, fol. 89v-90r.; *APF*, n° 156 (t. 26, septembre 1854), pp. 390-398.

48) AMEP 0487-4: Daveluy, vol.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1^{er} novembre 1855, fol. 116r.

49)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1^{er} novembre 1855, fol. 115v-116v.

신부 관할구에서 일어난 일로, 페롱 신부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Voulez-vous un exemple de la manière dont la grâce travaille. En voici un qui est arrivé dans le district de M. Féron, c'est de ce confrère que je l'ai entendu raconter.⁵⁰⁾

셋째, 연설 특히 설교에 삽입될 용도로 마련된 이야기라는 특징은 엄격한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예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선교사들의 예화도 서사성을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서신 교환자를 넘어선 다수의 독자에게, 나아가 대중적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중세 예화와 유사하다.

넷째, 유익한 교훈을 통해 청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이라는 중세 예화의 특징은 선교사 예화의 핵심적 목적이기도 하다. 단 청자가 독자로 대체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더구나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교훈은 때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교훈이 직접 전달된다.

은총이 한 영혼 안에 들어갈 때, 은총은 강합니다. 승리자 중의 승리자 인신 하느님께 영광을.

La grâce est forte quand elle entre dans une âme, gloire à Dieu le vainqueur des vainqueurs.⁵¹⁾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도처에서 교회는 비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위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 년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류의 사실 덕분에 우리는 건디어 내며 더욱 강건해집니다.

Vous voyez que l'Église est partout féconde et que les consolations ne nous sont pas refusées. Chaque année au milieu de bien des misères, des faits de ce genre nous soutiennent et nous fortifient.⁵²⁾

50) AMEP 0811: Aumaitre, lettre à Sarrazin, confrère, datée de Corée, 30 octobre 1863, fol. 5v.

51)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fin janvier 1856, fol. 78r.

52)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novembre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실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들의 의연함과 신의는 우리의 비겁함에 대한 규탄이 아니겠습니까? 당신께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나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시간에 쫓기는군요. Vraiment qu'il est consolant de penser à de tels gens, leur constance et fidélité, n'est-elle pas la condamnation de notre lâcheté. Je voudrais vous en dire beaucoup mais rien de marquant ne s'est présenté, et puis aussi le temps me presse.⁵³⁾

제가 믿건대, 이들은 자신들의 불행한 이웃들, 제 생각으로는 악하다기 보다는 눈이 먼 이웃들의 개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J'ai la douce confiance qu'ils prient avec ferveur pour la conversion de leurs malheureux compatriotes, à mon avis, plus aveugles que méchants.⁵⁴⁾

오 은총이 그를 어찌나 잘 인도했는지, 여러 달 동안 시험 당한 그의 의연함과 그의 인내심은 성공의 면류관으로 어찌나 빛났는지. 하느님께 영광을, 마리아께 은총을.

Oh que la grâce l'a bien conduit, combien sa constance et sa patience éprouvées pendant plusieurs mois ont été couronnées de succès. Gloire à Dieu, grâces à Marie.⁵⁵⁾

이 작은 세부 사항들은 그 자체로는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하느님께서 그 분의 백성을 끌어오기 위하여 취하신 모든 종류의 방식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들을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 당신께 알려드리으로써 당신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Ces petits détails sont bien mesquins en eux-mêmes, mais pour moi il me paraît si beau de voir toutes les formes que prend Dieu pour attirer ses élus, que j'ai cru vous faire plaisir en vous les rapportant tels qu'ils se présentaient à ma mémoire.⁵⁶⁾

1856, fol. 82v.-83r.

- 53) AMEP 0487-4: Daveluy, vol.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4, fol. 95v.
- 54)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l'abbé Renard, aumônier des religieuses du Saint-Esprit à Rouceux (Vosges), datée de Corée, 10 octobre 1859, p. 166.
- 55)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octobre 1854, fol. 69v.-70r.
- 56)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21 novembre 1857, fol. 126v.

그렇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는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조선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Il ne faut pas perdre courage cependant et j'ai confiance que Dieu se servira un jour de lui pour le salut de ses compatriotes.⁵⁷⁾

우리는 교회가 이 주위에 퍼질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Nous espérons beaucoup voir la religion se propager dans ces parages. [...] Il y en a bien d'autres, mais ils ne me reviennent pas à l'esprit.⁵⁸⁾

IV. 예화의 현지화와 조선, 그리고 프랑스인의 종교성

연구자는 1836년부터 1886년까지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로 보낸 서한을 검토하여 총 25개의 예화를 수집하였다. 선교사들이 선택한 일화는 대부분 개종 및 개종을 막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이교도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및 선교사를 후원하는 프랑스인들의 최대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전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예화들은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초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교인들', 두 번째 주제는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리스도교인들', 세 번째 주제는 '박해자 이교도들의 악행'이다. 각 에피소드는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예화의 현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두 전형적인 그리스도교 교훈

57)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59, fol. 147v.-148v.; APF, n° 194 (t. 33, janvier 1861), pp. 45-52.

58)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fin septembre, 1859, fol. 148r.; APF n° 194 (t. 33, janvier 1861), pp. 45-52.

및 선교사 담론을 드러낸다.

〈표 1〉 선교사들의 편지에 삽입된 예화의 예

	주제 A. 고초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교인들	주제 B.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리스도교인들	주제 C. 박해자 이교도들의 악행
1	Lettre de Berneux, aux présidents des Conseils centraux de la Propagation de la Foi, datée de Corée, 4 septembre 1856, dans les <i>APF</i> , n° 174, (t. 29, septembre 1857), pp. 392-401.	AMEP 0487-5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octobre 1854, fol. 69v.-70r.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21 novembre 1857, fol. 128r.
2	Lettre de Berneux, aux présidents des Conseils centraux de la Propagation de la Foi, datée de Corée, 4 septembre 1856, dans les <i>APF</i> , n° 174, (t. 29, septembre 1857), pp. 392-401.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datée de Corée, 6 septembre 1853, fol. 89v.-90r. publiée dans les <i>APF</i> n° 156 (t. 26 septembre 1854), pp. 390-398.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8, fol. 140rv. publiée dans les <i>APF</i> , n° 189 (t. 32, mars 1860), pp. 125-134.
3	AMEP 0487-5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fin janvier 1856, fol. 78r.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datée de Corée, 1 ^{er} novembre 1855, fol. 116r.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8, fol. 140v. publiée dans les <i>APF</i> , n° 189 (t. 32, mars 1860), pp. 125-134.
4	AMEP 0487-5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6, fol. 82v.	AMEP 0487-5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7, fol. 92r.	AMEP 0578Petitnicolas, lettre à Ganaye, curé à Hurbache, datée de Corée, octobre 1861, 196-197.
5	AMEP 0487-5Daveluy, vol. 8, lettre à ses frères et soeurs,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6, fol. 82v.-83r.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21 novembre 1857, fol. 126v.	AMEP 0578Petitnicolas, lettre à Ganaye, curé à Hurbache, datée de Corée, octobre 1861, pp. 197-198.
6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Barran, directeur au séminaire,	AMEP 0487-4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주제 A. 고초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교인들	주제 B.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리스도교인들	주제 C. 박해자 이교도들의 악행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4, fol. 95v.	datée de Corée, 21 novembre 1857, fol. 126v.	
7	AMEP 0487-4 Daveluy, vol.6, lettre à Albrand, directeur au séminaire, datée de Corée, novembre 1858, fol. 136r. publiée dans les <i>APF</i> , n° 189 (t. 32, mars 1860), pp. 125-134.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21 novembre 1857, fol. 126v.-127r.	
8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l'abbé Renard, aumônier des Religieuses du Saint-Esprit à Rouceux (Vosges), datée de Corée, 10 octobre 1859, p. 166.	AMEP 0487-5 Daveluy, vol. 8,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58, fol. 95v. + AMEP 0487-4 :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59, fol. 147v.-148v. publiée dans les <i>APF</i> , n° 194 (t. 33, janvier 1861), pp. 45-52.	
9	AMEP 0857 Bretenières, codex 4, lettre à ses parents, datée de Séoul, 30 juillet-17 septembre 1865, pp. 13-14.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59, fol. 148r. publiée dans les <i>APF</i> , n° 194 (t. 33, janvier 1861), pp. 45-52.	
10		AMEP 0487-4 Daveluy, vol. 6, lettre à Albrand, supérieur au séminaire, des MEP, datée de Corée, septembre 1859, fol. 148r. publiée dans les <i>APF</i> , n° 194 (t. 33, janvier 1861), pp. 45-52.	
11		AMEP 0811 Aumaitre, à Sarrazin, confrère, datée de Corée, 30 octobre 1863, fol. 5v.-6r.	

1) 주제 A: 고초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교인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선한 그리스도교인으로 대개는 초심자이다. 이들은 장애에 직면하지만 신앙을 잃지 않는다. 주인공은 다양한 남녀노소이며, 작가-선교사들이 묘사하는 고난은 등장인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고난의 다양함은 당시의 조선 사회의 사회관계성과 혈족관계의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

〈표 2〉 주제 A: 고초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교인

	주인공	교인이 된 경로	고초	이야기의 결말
1	남성, 70세 이상, 양반	천주교 서적을 우연히 독서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 관직에서 물러남, 아들들의 반대로 영세를 받지 못함	선교사가 교인회장을 보내 영세를 내림
2	여성, 새댁으로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시누이를 개종시킴		천주교에 적대적인 집안 남자들이 개종한 여자들을 박해	새댁과 시누이는 어쩔 수없이 우상숭배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반면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우상숭배 준비 거부
3	남성, 젊음	어머니	그의 주인에게 매 맞고 쫓겨남	영세 받고 형도 개종
4	종교적인 이유로 피난을 떠난 한 집안에 속한 30여명의 성인	부모	부모 사망,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 단절	교인들과의 관계를 되찾고 모두 영세 받음
5	여성, 고위 지방관의 아내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남편의 협박	남편이 종교생활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음
6	남성, 70대, 양반		가족이 천주교에 반대	영세 받을 기회를 기다림
7	남성, 73 세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	배교하지 않은 채 석방됨
8	두 여성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과부, 양반		성사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함	며느리가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옴
9	두 남성, 사촌간, 농부		거주 지역에 선교사가 오지 않음	농사일을 제쳐두고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상경

가장인 남성의 경우, 가족은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가족 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물이 직면하는 고난은 대개 외부에서 온다. 외부의 고난은 관가에 그를 고발하는 이웃 혹은 적이다. 양반 남성이 겪는 근본적인 고난 중 한 가지는 사회관계성에서 비롯된다. 한편 관직에서 물러난 나이 든 양반 남성은 가족, 특히 성인 아들과 대립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천주교인이 된다면 아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이 겪는 고난은 일차적으로 '이교도' 가족 때문이다. 특히 이 여성이 젊고 양반일 경우 어려움의 정도가 더 하다. 이 주제의 일화를 통해 조선 시대 천주교인 여성들이 겪었던 고초의 주된 원인은 가족이었던 반면 천주교인 남성들이 겪는 고난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주제 B: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리스도교인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것은 선교사의 의무이므로 선교사들은 놀라운 개종 에피소드들을 프랑스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했다. 사실상 모든 개종은 특별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 예화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비범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교를 실천한다.

〈표 3〉 주제 B: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리스도교인

	주인공	교인이 된 경로	사건의 전개	이야기의 결말
1	남성, 양반	천주교 서적의 자발적인 독서	아버지와 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천주교 예찬을 작성	모든 가족을 개종시킴
2	남성, 포교의 형제		형제가 죽음으로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음	형제의 부인이 감동을 받고 개종
3	남성, 양반		고발되어 투옥되었으나 배교 요구를 받지 않은 채 석방됨	감동을 받은 포졸이 개종하면서 가족도 개종시킴. 이후 너댓 가족이 개종함

	주인공	교인이 된 경로	사건의 전개	이야기의 결말
4	남성, 상인	교인들과의 우연한 만남	영세를 받을 때까지 교인들과 함께 지냄	가족을 개종시키기 위해 떠남
5	젊은 신부(新婦)의 부모		딸을 이교도와 결혼시켰기 때문에 주교의 문책을 받음	사위를 개종시킴
6	여성, 기혼		남편 몰래 민느라 교리를 거의 알지 못함	‘순종적인’ 남편을 개종시킴
7	남성		죽는 순간 영세 받음, 무재개가 망자의 집 위에 나타남	놀란 이교도들이 개종함
8	남성, 중국에서 난파당한 선원	홍콩에서 그를 맞이한 선교사들	고향으로 돌아가 전교활동을 펼침	아내와 자녀를 개종시킴
9	여성, 새댁		제사를 거부하고 시댁에서 신앙을 고백하여 친정으로 내쳐짐	감동 받은 이웃들이 개종함
10	여성, 9번이 이야기 주인공의 고모		9번과 동일한 사건 전개	9번과 동일한 결말
11	어떤 가족		이교도 마을에 정착함, 마을의 한주민이 기도 소리를 들음	마을 전체가 개종함

이 이야기들을 통해 선교사들은 척박한 이역만리에서도 복음화가 어엿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프랑스인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한편 이 예화 속에는 19세기 조선 사회에 특정한 개종 양상이 관찰된다. 남성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비교적 수월하게 가족을 개종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남성이 부권을 상징하는 가장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가족을 개종시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한편 가족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종은 능동적인 전교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는 천주교가 조선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전교활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암시한다.

3) 주제 C: 박해자 이교도들의 악행

이 주제에 해당되는 5개의 예화 중 4개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악한 이교도는 벌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이교도를 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나쁜 야만인'이다. 특히 이들이 '우상숭배'의 열렬한 신봉자라면 선교사들의 펜 끝은 더욱 날카롭다. 이교도 조선인에 대한 엄격한 시선은 '착한 미개인'인 조선신자들을 향한 호의와 대조를 이룬다. 조선 교인들은 유럽 교인들보다 《더 단순하고, 더 다루기 쉽고, 더 충실》⁵⁹⁾하다고 묘사되기도 하였으므로, '나쁜 야만인'들과 '착한 미개인'의 대조를 통해 선교사들은 선교의 정당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

〈표 4〉 주제 C: 박해자 이교도들의 악행

	주인공	사건 전개	이야기의 결말
1	여성, 나쁜 그리스도교인	선교사가 마을에 머문다는 비밀을 누설함, 마을의 이교도들은 선교사를 떠나도록 강요함	선교사는 마을 교인들의 울음과 이교도들의 무서운 시선 속에서 출발함
2	남성, 이교도지만 가족 중에 교인이 있음	백여 명의 교인을 고발함	관리에 의해 투옥되고 벌 받은 사람은 고발자
3	이교도들	관리의 직인을 모사하여 교인들의 몸값을 받고자 함	모두 체포됨
4	포졸 두 명	명령 없이 교인회장을 체포하여 몸값을 챙김	이들은 관리에 의해 처벌받고 회장은 풀려남
5	포졸 네 명	명령 없이 교인들의 집을 수색하여 약탈	다른 이교도들이 교인들을 도우려 움, 포졸들은 훔친 물건을 되돌려 줌

59) AMEP 0578: Petitnicolas, lettre à sa cousine, Justine, datée de Corée, octobre 1863, p. 255.

악한 이교도의 거짓말과 술수에 맞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승리를 거두는 일화는 선교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프랑스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적합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또한 악한 이교도 일화는 선교사들 및 조선 교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초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예화 3, 4, 5 등과 같은 사건들은 1860년대에 조선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체포된 천주교인들의 재산을 개인들이 약탈하는 관습이 용인되었던 탓에 포졸들은 천주교인의 재산을 두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단 천주교인으로 몰려 체포되기만 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조선 조정은 천주교를 버린 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적 약탈 행위를 금지시키고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주교인들로부터 압수한 재산의 장부(방매성책)를 작성하였다.⁶⁰⁾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의 예화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증언이 되기도 한다.

V. 결 론

1887년 이전, 특히 『조선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⁶¹⁾가 출판된 1874년 이전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발견에 대해서도 글을 쓰도록 요청 받았다. 사실 이 시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수신한 서한은 거의 전 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서신교환자가 무엇을 기대했

60) 원재연, 「박해 시대 천주교 신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 『민족사와 교회사』(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 337-381.

61) Charles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Victor Palmé, 1874), 2 vol., CXCLL-387-595 p. 『한국천주교회사』, 안용렬, 최석우 역(서울: 분도출판사, 1979), 3 vol.

는지 직접 알아낼 수는 없다. 단지 선교사들의 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이 읽고 싶어 한 글쓰기를 추측할 따름이다. 프랑스의 서신교환자가 선교사들에게 기대한 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민속학적 단편이며 다른 하나는 교훈적인 일화이다. 물론 선교사들이 항상 수신자의 기대에 맞춰 편지를 썼다고 볼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선교사와 서신을 교환했던 프랑스인들은 선교사들로부터 특정 유형을 글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선교사들은 이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예화는 프랑스 서신교환자들이 원했던 글일 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기꺼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글쓰기 형식 중 하나였다.

편지에 삽입된 교훈적인 일화를 읽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시의 조선 사회에 대한 민속학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서신교환자를 감화시키려는 선교사들의 의지와 선교사들을 통해 감화를 받으려는 서한교환자의 의지를 반영하기도 한다. 예화는 '선교사식으로 올바른' 글쓰기의 전형이며 이 글쓰기를 통해 전달 되는 조선은 이 이야기의 전형적인 배경이 된다.

19세기 선교사 텍스트는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 대한 지식을 보급한다. 유럽의 확장이 절정에 이르렀던 19세기에 모든 땅은 '발견'되고 '탐험'되었다. 선교사들은 '탐험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유럽의 가톨릭 대중은 미지의 선교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 했다. 선교사의 주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선교사의 일상적인 서한은 서구에서 다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주된 통로였다. 이 역할은 1836~1886년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에게서 더욱 더 정당화 된다. 결과적으로 선교사 텍스트는 서구에서 오랫동안 다른 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단편으로 읽혔다.

한편, 19세기 선교사 텍스트는 대개 서한문으로서 선교사와 서신교환자의 종교적 체험을 포함한다. 이 텍스트는 유기적인 글, 다시 말해 선교사의 삶에서 비롯되어 이 삶의 리듬을 반영하는 글이

다. 따라서 선교사 텍스트는 선교사가 겪는 사건의 중심에서 구축되며 선교사 삶의 특성으로 인해 선교사 텍스트는 프랑스 서신교환자들에게는 독창적인 재복음화의 도구가 된다. 서신교환자 및 서신의 성격과 관계없이 선교사들은 사도적 목적으로 글을 썼으며 선교 원칙은 글쓰기 실행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편지에 삽입된 교훈적 일화는 19세기에 절정에 달한 프랑스 가톨릭 외방 선교를 내방 선교로 연결시키려는 의지를 어떤 장르보다 더 간절하게 보여준다.

[투 고 일 : 2009년 7월 3일]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14일]

참고문헌

- 김은영. 2008. “서양인이 읽은 조선-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9호, pp. 201-237.
- _____. 2009. “1831-1886년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여행 보고문: 프랑스인을 겨냥한 선교 담론의 구축”, 『프랑스사 연구』, 제20호, pp. 101-130.
- 원재연. 2002. “박해 시대 천주교 신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 『민족사와 교회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pp. 337-381.
- Beaulieu, Marie-Anne Polo de. 2008. 《L'histoire religieuse en France》, <http://www.menestrel.fr> (검색일: 2008.2.18).
- Berlioz, Jacques, Marie Anne Polo de Beaulieu (dir.), 1992, *Les Exempla médiévaux*, Carcassonne: GARAE/Hesiodé.
- Boutry, Philippe. 1986. *Prêtres et paroisses au pays du curé d'Ars*, Paris: Le Cerf.
- _____. 1994. 《Ultramontanisme》, Philippe Levillain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papauté*, Paris: Fayard.
- _____. 1998. 《Ce catholicisme qu'on pourrait dire intransigeant》, avant-propos à Michèle Sacquin, *Entre Bossuet et Maurras. L'antiprotéstantisme en France de 1814-1870*, Paris: École des chartes.
- _____. 2005. 《Papauté et culture au XIX^e siècle. Magistère, orthodoxie, tradition》, *Revue d'histoire du XIX^e siècle, Religion, politique et culture au XIX^e siècle* (2004-28), <http://rh19.revues.org/document615.html>(검색일: 2007. 8. 10).
- _____. 2007. 《Un catholicisme intransigeant. Le «moment Pie IX» (1846-1878)》, Alain Corbin (dir.), *Histoire du christianisme*, Paris: Le Seuil.
- _____. 2007. 《Jean-Marie-Baptiste Vianney, curé d'Ars (1786-1859)》, Alain Corbin (dir.), *Histoire du christianisme*, Paris: Le Seuil.
- Bremond, Claude, Jaques Le Goff, Jean-Claude Schmitt. 1982. *L'«Exemplum»*, Turnhout: Brepols.
- Cabanel, Patrick, Michel Cassan. 1997. *Les catholiques français du XVI^e au XIX^e siècle*, Paris: Nathan.
- Dehergne, Joseph. 1975.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Catholicisme*,

VII.

- Dupront, Alphonse. 1987. *Du sacré. Croisade et pèlerinages. Images et langages*, Paris: Gallimard.
- Grasdorff, Gilles Van. 2007. *La belle histoire des Missions-Étrangères. 1658-2008*, Paris: Perrin.
- Hildesheimer, Françoise. 1996. *L'histoire religieuse*, Paris: Publisud.
- Julia, Dominique. 1974. «La religion. Histoire religieuse», *Faire de l'histoire*, t. II.
- Kim Eun-Young. 2008. "Le discours des missionnaires français en Corée (1831-1886): correspondances et relations", thèse de doctorat,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Paris.
- Laborie, Jean-Claude. 1998. «Introduction», à Jean-Claude Laborie (éd. et trad.), *La mission jésuite du Brésil. Lettres & autres documents (1549-1579)*, Paris: Chandeigne.
- Langlois, Claude, Jean-Marie Mayeur. 1974. «Sur l'histoire religieuse de l'époque contemporaine», *Revue historique*, t. 512, pp. 433-444.
- Langlois, Claude. 1987. «Trente ans d'histoire religieuse»,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pp. 85-114.
- Langlois, Claude, André Vauchez. 1995. «L'histoire religieuse», François Bédarida (dir.), *L'histoire et le métier d'historien en France*, Paris: Éd.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p. 313-323.
- Launay, Adrien. 1894. *Histoire général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Paris: Téqui.
- Laux, Claire. 2001. «L'élan missionnaire en France et en Angleterr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XIX^e siècle», Hélène Fréchet (coord.) *Religion et culture de 1800 à 1914. Allemagne - France - Italie - Royaume-Uni*, Paris: Éd. du Temps.
- Le Bras, Gabriel. 1942, 1945. *Introduction à l'histoire de la pratique religieuse en France*, Paris: Puf, 2 vol.
- Le Goff, Jacques, René Rémond. 1988. «Préface», à Jacques Le Goff, René Rémond (dir.), *Histoire de la France religieuse*, vol. 1, Paris: Le Seuil.
- Levillain, Philippe. 1983. *Albert de Mun. Catholicisme romain et catholicisme français du Syllabus au Ralliement*, Rome: Bibliothèque des Écoles françaises d'Athènes et de Rome.

- Mayeur, Jean-Marie (dir.). 1975. *L'histoire religieuse en France. XIX^e-XX^e siècle. Problèmes et méthodes*, Paris: Beauchesne.
- _____. 1996. *Catholicisme social et démocratie chrétienne. Principes romains, expériences françaises*, Paris: Le Cerf.
- Molette, Charles. 1980.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Vatican II»,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ascétique et mystique*, t. 10.
- Pelletier, Denis. 1997. *Les catholiques en France depuis 1815*, Paris: La Découverte.
- Pirotte, Jean. 2004. «La mobilisation missionnaire, prototype des propagandes modernes», Chantal Paisant (éd.), *La Mission en textes et en images, XVI^e-XX^e siècles* [actes du colloque du GRIEM, janvier 2003], Paris: Karthala.
- Poulat, Émile. 1977. *Église contre bourgeoisie. Introduction au devenir du catholicisme actuel*, Paris: Casterman.
- Prudhomme, Claude. 2004. «Quand triomphe la missionautopsie d'un succès», Claude Prudhomme (dir.), *Une appropriation du monde, mission et missions, XIX^e-XX^e siècle*, Paris: Publisud.
- _____. 2007. «L'action missionnaire aux XIX^e et XX^e siècles», Alain Corbin (dir.), *Histoire du christianisme*, Paris: Le Seuil.
- Rémond, René. 1988. «L'histoire religieuse en France au XX^e siècle», *Vingtième siècle*, pp. 93-107.

사료

AMEP(파리의방전교회 문서고) 0487: Daveluy

AMEP 0578: Petitnicolas

AMEP 0811: Aumaitre

AMEP 0857: Bretenières (Ranfer de)

AMEP H-10, H-11: Couderc

Pallu, François, Pierre Lambert de la Motte. 1665. *Monita ad Missionarios. Instructions aux Missionnaires de la S. Congrégation de la Propagande, rédigées en 1665 par François Pallu, évêque d'Héliopolis & Pierre Lambert de la Motte, évêque de Béryste*; 2000, rééditées par les Archiv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Oeuvre de la Propagation de la Foi. 1825-1933.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n° 1-632.

Compagnie de Jésus. 1702-1776.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34 vol. Paris.

Dallet, Charles. 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Victor Palmé, 2 vol.; 안응렬, 최석우 역, 1979,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분도출판사, 3 vol.

Edifying Story of the French Missionaries in the 19th
century Korea, Korea and France – A Non-stereotyped
Reading of the Stereotyped Text

KIM Eun-Young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e edifying story corresponds to episodic writings conceived to give a lesson of Christianity. In this article, it reduces to the stories that the French missionaries in Korea have experienced or that they have heard and they inserted into their letters. On the one hand, this kind of writing is situated in the tradition of the exemplum and on the other hand, it reminds the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1702-1776) of the Jesuits.

The edifying story is a genre quite familiar not only to the French missionaries but also to their correspondents. In addition, Korean anecdotes are at a time classic and exotic as well as educational and pleasurable, allowing their authors to move more effectively readers. Whatever its fictional nature is, the edifying story produces and reproduces knowledge on a 'typical' Korea while providing unexpected testimonies about this kingdom. Therefore, the Korean edifying story is interpreted at a time as an exemplum and as an ethnographic note.

Another reading of the missionaries' edifying story rests on its stereotyped character because this 'missionarily correct' literature invites us to consider the religious mentality of its author and its reader. Thus, to analyze the edifying stories written by the French missionaries in the 19th century Korea is without doubt an interesting

way to better understand the French Catholics' religiousness when they led worldwide the Catholic mission.

Key Words : Exemplum, Missionary text, Religious mentality, French missionary, Korean Church History.